

새 정부에 바란다



글 · 박 상 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우리나라 보험 30년은 우리 병원계에게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곡예의 연속이었다. 흔들리는 줄 위에 서서 앞을 보고 초긴장 상태로 한발 한발을 내디딘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거친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외줄 위에 몸을 맡긴 채 시공(時空)을 지나온 위기의 시간이었다. 때론 떨어져 회복 할 수 없는 손상으로 포기하는 병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통스런 아픈 몸을 추스르고 그 위험한 줄타기를 다시 시작하곤 하였다. 더 이상의 줄타기를 하기에는 우리 의료계는 너무나 지쳐 버렸다. 쇠잔한 체력으로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쓰러져가는 의료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 태어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는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적(最適)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삭감하고 차등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요양 급여 심사가 재정 절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의료인의 숙명적이면서 신성한 사명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구하는 것이다. 현실의 의료 환경에서는 이를 위한 소신(所信)진료를 할 수 없다. 이 나라 의과대학에서는 통제되고 규격화된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를 교육하지 않고 의료 선진국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이 굴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변신하길란 매우 어려우며 또한 변신되어서도 안 된다. 교과서적 진료보다 심사평가원에서 개발된 규격화된 통제적 의료 행위의 심사기준이 상위(上位)에 굴림하고 있다. 지난 30년의 암울(暗鬱)한 의료의 역사이다.

이 결과 우수 의료인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명시한 비급여권으로 몰리고 이로 인한 의료 왜곡은 끝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 원가 보상이 되지 않는 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하여 의료인들은 비급여로 보상하려고 보험자는 과잉본인부담으로 환수 조치시키고 환자들의 이의 신청 고무(鼓舞) 및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신뢰(信賴)로부터 불신(不信)의 관계로 몰아가고 있으며 의료인들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매도(罵倒)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질(質) 향상은 자유시장 논리에 맡겨 자발적 틀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전문가 단체에 의해 평가되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초(基調)인데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의료기관을 서열별로 줄 세우고 있다. 어찌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겨야 할 의료인의 대접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의료공급자로서의 업무 위임의 대등한 대접이 아니라 붙잡아온 하인 대접이다. 건강보험법에는 수가계약이라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제도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제한된 재정 안에서 수가는 일방적 통보로 전해질 따름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불복종 죄가 가산되어 정부 및 보험자의 대변 역할을 하는 건정심이라는 우월적 조직에 의해 더욱 삭감되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는 국민을 위한 보건 복지의 확실한 근간(根幹)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의 기본적 공공성을 확립하는 한편 선택과 차별이 가능한 시장 논리를 조화롭게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갑자기 도입한 의료보험의 저(低)수가, 저부담, 저급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료재정 규모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 선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의 복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평성, 확실성과 인위적 재분배의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성, 다양성 및 능률적 재분배를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로 향해야 할 것이다. 경제 대국의 반영(班列)에 들어서고 있는 이 나라,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재정이 적정하며 이 재정으로 어느 수준의 의료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상할까를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통제적이고 획일적 진료에서 다양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로 전환되고 의료전문가의 소신(所信) 진료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된 의료 환경에서 의료인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국민과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우리 병원협회는 숨 막혀 질식 직전의 의료인들을 이 암울(暗鬱)한 긴 터널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새로 탄생한 정부에 강력히 기대해 본다. **KHA**